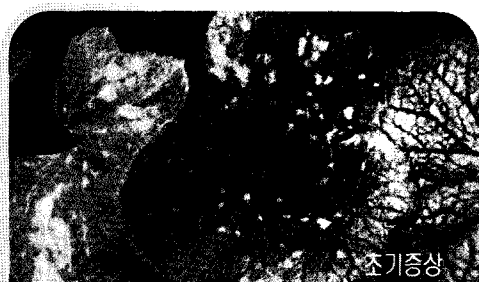


참외 · 메론



동양계 참외는 외피가 백색 또는 황색이고 매끈하며 과육은 대부분 희고 육질은 연하고 맛이 달다. 품종으로는 신대형 은천 참외, 코로나 참외, 노랑 참외, 성환 참외가 주종이다. 성분은 수분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참외의 속이 과육보다 총당은 많으나 환원당이 적으므로 설탕이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감미도가 높다. 알칼리성 식품이며 비타민의 양은 적으나 폴코루 함유되어 있다.

■ 박진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조기증상



중증상

조기증상

잎, 줄기, 과실에 발생하나 주로 잎에 많이 발생한다. 감염부위에는 하얀 균총이 표면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심하면 잎 전면에 밀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줄기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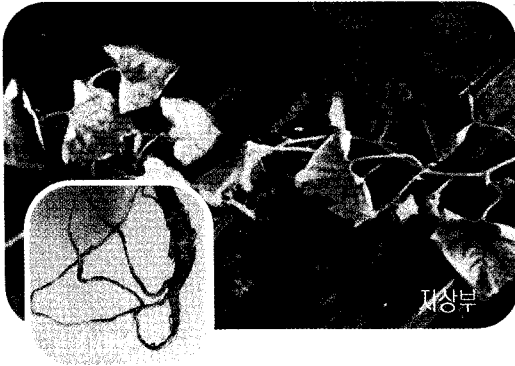
과실(메론)

균핵병

줄기와 과실에 발생한다. 줄기의 감염부위는 백색 내지 회백색으로 변하여 썩으며, 후에 흰 균사가 자라면서 부정형의 검은 균핵을 형성한다. 주로 꽃이 달린 부위에서부터 감염되고 진전되면 과실이 물러 썩는다. 병든 부위에서는 진물이 나오고, 흰 균사가 자라다가 부정형의 검은 균핵을 형성한다.

노균병

주로 생육중기 및 후기의 잎에 심하게 발생한다. 초기에는 아래 부분의 잎 앞면에 엽맥을 경계로 하는 반점이 형성된 후 점차 위로 진전되며, 이들이 합쳐지면 잎이 말라죽는다. 병든 잎은 잘 찢어지고 황갈색을 띤다. 환경이 적당하면 잎 뒷면에 이슬처럼 보이는 곰팡이가 다량 형성되는데, 흰색 혹은 회색으로 보인다.



유묘기에는 잘록 증상으로 나타나고, 기온이 높고 건조해지면 감염주위가 말라 가늘어진다. 생육기에는 뿌리와 줄기썩음으로 나타나며, 땅가 부위의 줄기나 뿌리는 수침상으로 썩고, 연한 갈색으로 변한다. 병든 그루의 잎은 누렇게 변해 시든다. 일반적으로 잔뿌리가 먼저 침해를 받고 진전되면 주근과 줄기 아래로 병이 진전된다.

잘록병

유묘기부터 생육중기까지 발생한다. 유묘기에는 묘의 지체부가 잘록해지면서 썩고, 병든 묘는 잘 쓰러지며 말라죽는다. 생육이 어느 정도 진전된 식물체는 줄기의 지체부에서부터 황갈색으로 변하며 썩어 올라간다. 병든 식물체의 지상부는 시들고 말라죽는다.



유묘기부터 전 생육기에 발생되며, 주로 뿌리와 줄기의 땅가 부위에 발생되지만 땅에 닿은 과실에서도 발생이 된다. 병든 포기의 땅가 줄기와 굵은 뿌리는 수침상으로 썩으며 쉽게 뽑히고, 과실에는 부정형의 큰 수침상으로 병반이 나타난다. 병든 부위에 하얀 균사체와 유주자낭이 형성된 것을 가끔 관찰할 수 있다.